- 본 글은 흑페(@ blackisawesomec)님께서 운영진으로 참여하신 낙원 커뮤니티와 관련하여 발생한 여러 문제 상황에 대해 알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작성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다수의 제보와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피해 사례가 반복적으로 존재함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고 공익적인 목적에서 사실 관계를 공유하고자 본 공론화를 진행합니다.

특정인을 향한 **2**차 가해가 사전에 확인이 되어 재발을 방지하고자 공론화를 작성하신 분들은 익명으로 처리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공론화 문서 바로가기

> a님의 공론화문
> b님의 공론화문
> c님의 공론화문
> d님의 공론화문
> 낙원커뮤 관련입장문

전체 공론화 요약

1. 개인 감정 기반의 관계 단절 및 책임 전가

- 흑페님은 특정 시점 이후, 별도의 충분한 소통 없이 갑작스럽게 거리두기를 시작함
- 이후 '감정 쓰레기통 취급', '필요할 때만 찾았다'는 주장을 제기했으나, 주변 러너들의 증언 및 당시 정황과는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확인됨
- 당사자의 의도를 확인하기보다 단정적으로 판단한 뒤 관계를 단절한 양상

2. 공개적·지속적 배제 및 고립 유도

- 디스코드 및 게임 등 다수 인원이 있는 자리에서
  - 인사 및 발언 무시
  - 접속 시 이탈
  - 특정 인원과만 대화하며 의도적 배제
- 단순 거리두기를 넘어, 특정 인원을 고립시키는 형태의 행동이 반복됨
- 일부 러너 및 운영진이 이를 인지하고 개인적으로 우려를 전달할 정도의 상황 발생

3. 사후 여론 형성 및 편가르기

- 제명 이후 별도 디스코드에서 특정 인원에 대한 부정적 발언 및 정보 공유 정황 확인
- 일부 러너들에게 일방적 내용 전달,편을 나누거나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 형성
- 당사자와의 사실관계가 왜곡된 채 전달됨

4. 운영진 권한의 감정적 사용 및 내부 의사결정 문제

- 특정 인원의 주도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며 다른 운영진의 의견 제시가 어려운 구조 형성
- 운영 관련 논의에서 일부 운영진 배제, 운영진의 중립성 결여

5.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관계 형성 및 배제 패턴

복수의 증언을 통해 다음과 같은 공통된 패턴이 확인됨:

- 처음에는 문제없이 지내며 점점 가까워진다.
- 가까워지는 과정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발생
- 주변 사람들에게 당사자의 험담을 하며 트위터나 디코 같은 곳에서 공개 저격을 한다.
- 대부분의 이유가 개인적 사유 (ex: 자신이 그 사람을 맞춰준다고만 생각한다는 등)
-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라고 발언을 한 것, 주변 사람들에게 솔직하지 않은 점들을 지적하는 것과는 달리 대화로 풀 수 있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에게 감정적으로 상처를 주는 워딩들을 하며, 요약하자면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보다는 감정에 치우쳐서 감정풀이만 반복하심. (+교묘한 언변으로 주변인들에게 가스라이팅)
-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왜곡되어 퍼트림 or 판단을 흐리게 하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함.

마무리로

저희가 그동안 흑페님과 함께 지내오면서, 흑페님의 말씀과 의견을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그대로 따라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희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해야 할 상황에서도 그러지 못했고, 그 점이 얼마나 경솔한 행동이었는지 지금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따라가는 일 없이, 저희 각자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하겠습니다.

이야기 하기에 앞서

해당 사안이 일정 부분 개인적인 문제라는 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디스코드 내 여러 구성원들이 눈치를 보거나 분위기가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느꼈으며, 이러한 문제가 특정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공론화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요약

1. 겹 관캐와의 성사 이후, 갑작스러운 흑페님의 거리두기

흑페님이 좋아하던 Z 캐릭터는 흑페님의 고백을 정중히 거절

→이후 제 캐릭터 G 와 Z 캐릭터 관계가 성사

→이후부터 흑페님이 애프터 상에서 아무 말 없이 피하기 시작

→시간 순서상 감정적 동기가 의심되는 부분

2. 감정 쓰레기통 취급,필찾 주장과 다른 주변인들의 증언

결국 직접 개인디코를 찾아가 물어봤음

→흑페님은 자신을 감정 쓰레기통 취급하고 필요할 때만 찾았다고 주장

→당시 디코에 있던 러너분들은 제가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 느끼지 못했다고 함

→또한 흑페님 트위터에는 이전부터 꾸준히 걱정 반응을 남겨왔음

→흑페님은 불만을 직접 말하는 대신, 확인사실 없이 단정하고 말없이 멀리하기 시작

(의문 들기 시작**)**

3. 단순 거리두기를 넘어 공개적으로 고립시키는 행동 반복

이후 흑페님은 애프터디코나 SNS 상에서 제 인사와 발언을 노골적으로 무시

→ 제가 들어오면 디코를 나가거나, 다른 사람과만 대화하며 저만 배제하는 행동 반복

→ 애프터 디코에 계시던 러너 분들이 걱정되어 저에게 따로 연락을 취할 정도

사건 **1.** 겹 관캐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 개입 연관성 및 사건 순서

당시 흑페님과는 **2**년가까이 알고지낸 커뮤 지인사이였습니다.

1월에 개장하였던 낙원 이라는 마인크래프트 기반 커뮤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약 **3**개월간의 러너로 뛰며 애프터를 지속하였습니다.

당시에 흑페님의 캐릭터는 애프터 다수의 인원과 썰이나 로그를 자유롭게 주고받고 계셨으며, 그 중에는 저도 포함 되어 있었습니다.

허나 **4**월 **10**일**,** 흑페님께서는 낙원 1기때부터 좋아했던 캐릭터 **Z**에게 직접 관캐라고 언급하였고

Z오너님은 그러한 고백을 정중히 거절하셨습니다.

이후 **Z** 캐릭터는 제 캐릭터인**G** 와 맞관임을 인지하고 접점이나 보여지는 관계성 등이 확실하게 굳어졌으며**,**

자연스럽게 z 오너님과 공개적인 자리(디코,SNS)에서 관계성을 함께 즐겨왔습니다.

그리고 **4**월 **12**일**,** 흑페님과 **gg**님 **(**제명된 관리진 분**)**님은 다른 관리진 분께 비밀방이라 언급하며 장기적 친목을 위한 자관 디코방 링크를 공유해주셨고 (나머지 관리진의 어떠한 허락도 받지 않은 디코방입니다.)

이는 아래 낙원 커뮤 공지사항에도 명시되어있듯이 애프터 중 명백한 친목도모 행위였습니다.

당연하게도 그 자관에 끼지 못하여 소외되는 인원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었고 애프터 디코 화력에 또한 영향이 미치는 일이었습니다.

[애프터 공지]

애프터 진행 중 타 디코방, 오픈채팅방 등 *장기적* 친목을 목적으로 다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 생성은 괄진에게 먼저 말씀해주세요.

특히 **인원제한이 없을 경우**에 해당 공간에서 만들어진 내용으로 애프터 타임라인이 도배되어 **플로우가 흐트러짐이 우려**됩니다.

공지 이전 만들어진 친목방을 제재할 순 없으나, 그 안에서 나눈 이야기가 **애프터 탐라를 도배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고, **추가적 인원을 받지 말아주세요.**

다같이 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디스코드 채널 추가로 자리를 마련해드릴테니, 소외층이 생기지 않도록 또 조심해주시길 바랍니다.

'낙원'을 늘 아껴주시고 즐겨주시는 러너님들께 항상 감사드리며, 모두가 즐거울 수 있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15

위와 같은 시간적 순서를 고려해보았을때, 흑페님이 **4**월 **12**일 경부터 갑작스럽게 저를 피하며 거리를 두려고 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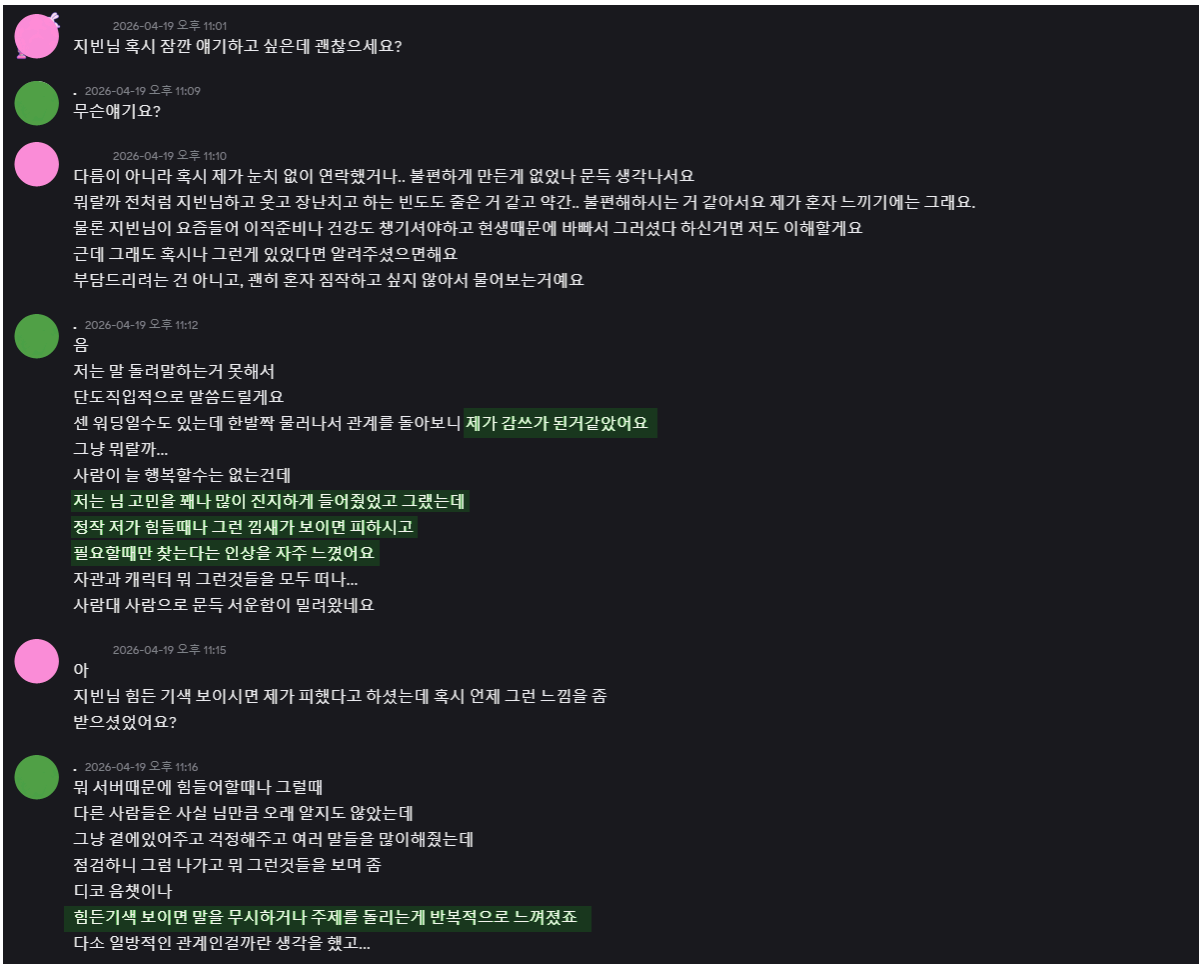
해당 시간적 순서를 고려했을 때, 감정적 동기가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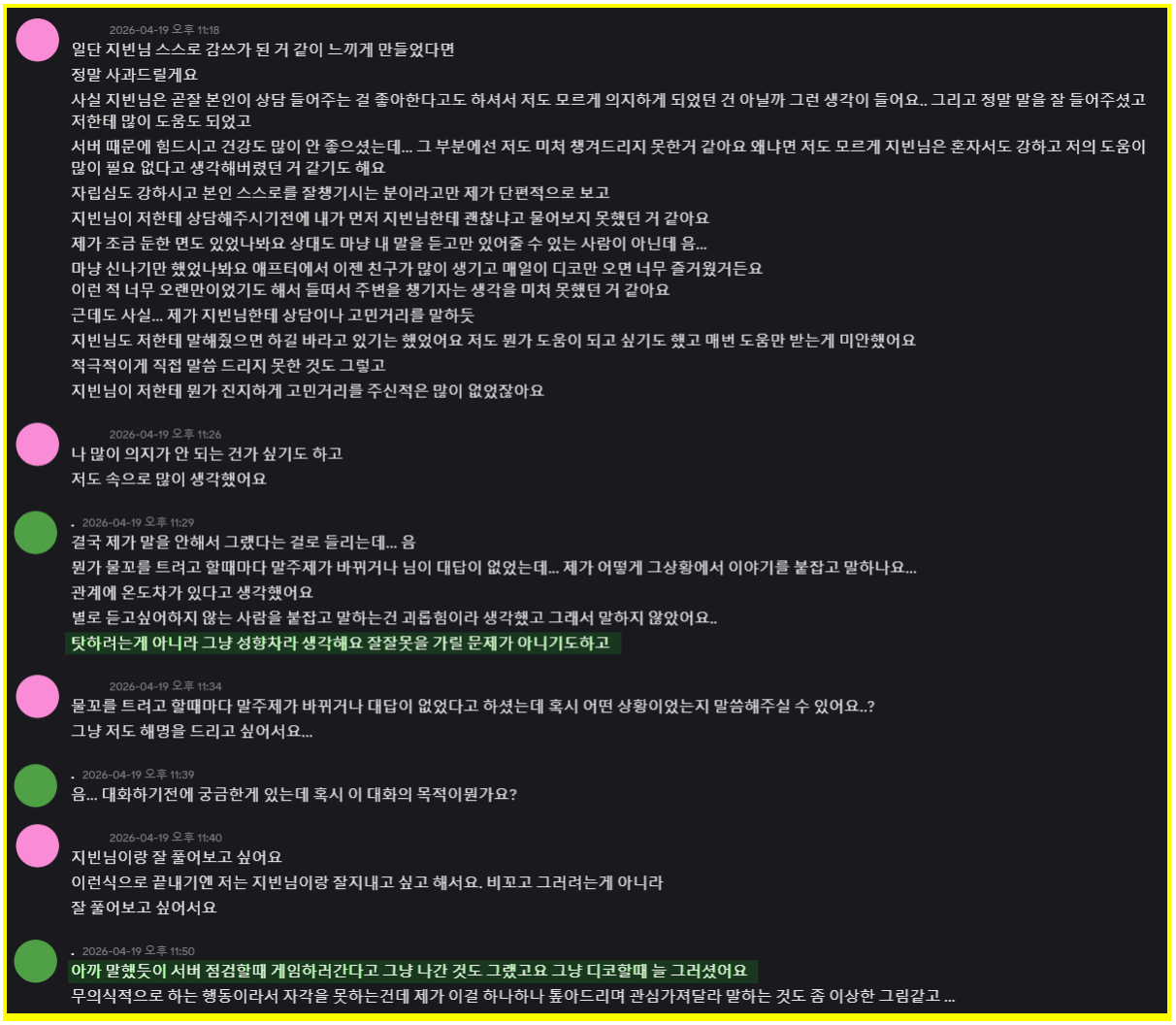
사건 **2.** 감정 쓰레기통 및 필찾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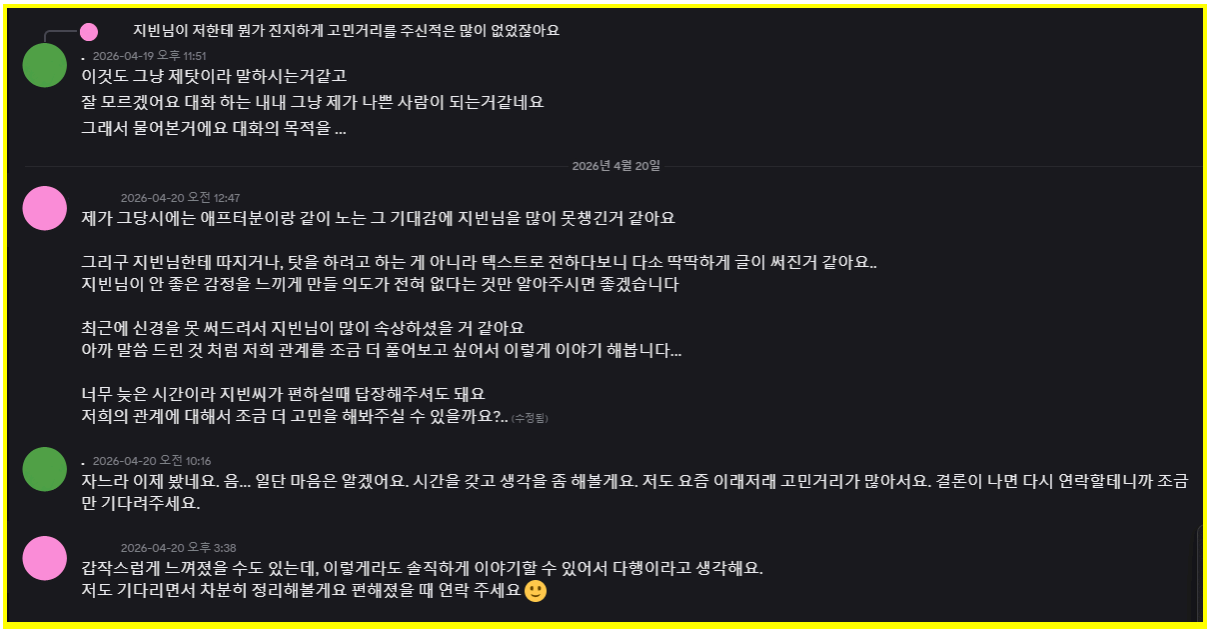
4월 **12**일 경부터 흑페님은 인게임은 물론이고 갑작스럽게 트위터, 디코 및 스팀 단체 게임 등에서 의도적으로 저를 피하시고 말을 걸어도 무시하시거나, 대화를 길게 이어가고 싶지 않은 듯 끊어내셨습니다.

애프터 디코에서도 이러한 양상이 지속되자 해결하고자 **4**월 **19**일 개인 디코를 찾아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록색: (*지빈 = 흑페) 핑크색: (a 본인)







1) 흑페님께서 제가 감정 쓰레기통처럼 대한다고 느꼈고, 제가 필찾**(***필요하면 찾는 행위**)**을 하는 것 같았다는 말씀을 하셨으며, 또한 음성 채팅에서 마인크래프트 서버

관리로 힘들어할 때 제가 챙겨주지 않고 말주제를 돌리거나 무시한 것처럼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작년 한 차례, 그리고 올해 두 차례 상담을 드린 바는 있으나, 이를 감정의 배출 창구나 일방적인 부담을 주는 관계로 보실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애프터 진행 과정에서 새롭게 마인크래프트 서버가 열렸을 때, 서버가 점검중이니 제가 다른 분들에게 "그럼 피크(게임) 할까?" 라는 말을 꺼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게임하러 가버리며 이야기를 회피하거나 주제를 돌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돌아보면, 해당 상황은 의도적인 무시가 아닌, 다수의 대화가 동시에 진행되며 발언이 겹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방에 있던 분들도 제가 일부러 무시하거나 말주제를 바꿨다고 느끼지는 않았다는 의견을 주셨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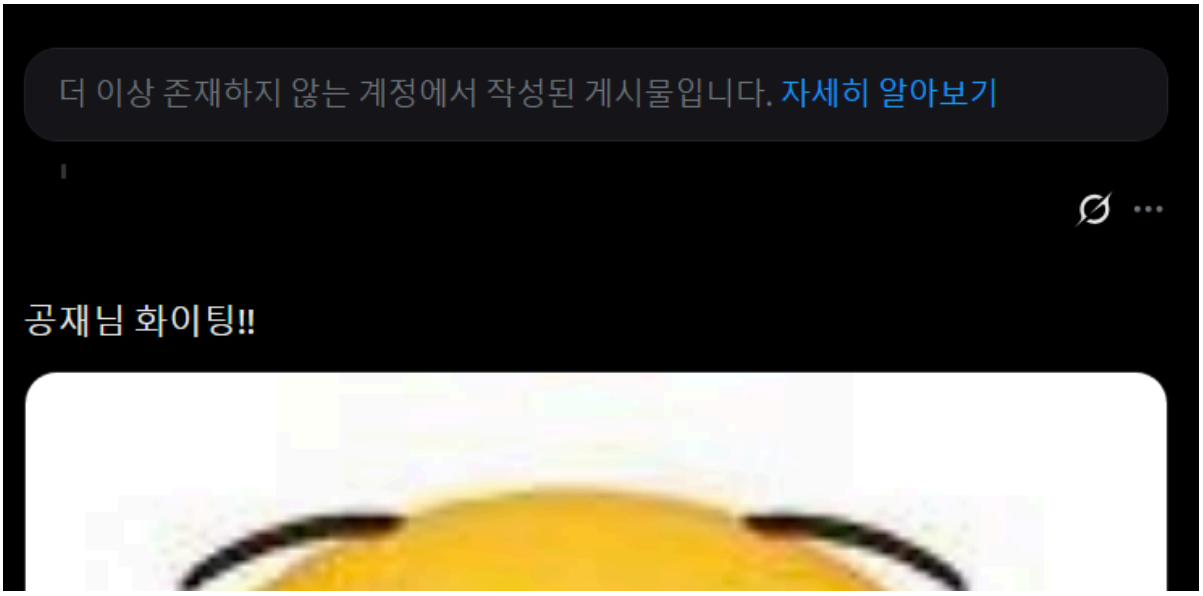
결정적으로 저는 재차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으나

서버관련 얘기 외에는 **"그냥 늘 그러셨어요"** 와 같은 애매한 답변만 되풀이 하시며 정확한 대답과 설명을 끝까지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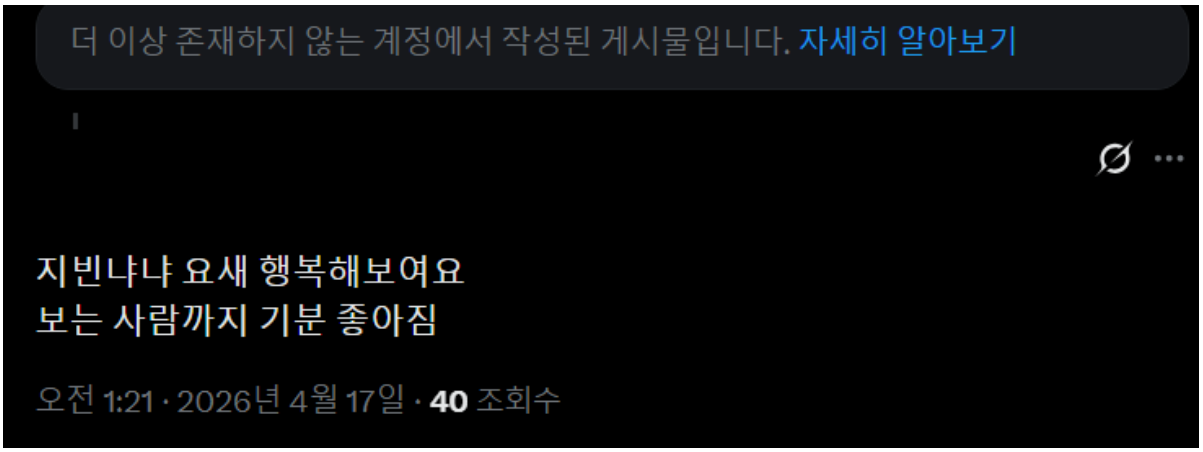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며 성향차라고 말씀주셨지만 결국은 제가 눈치채지 못하였고, 자각하지 못한 탓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2) 또한, 제가 흑페님을 신경 쓰지 않고 필찾을 했다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게 느껴집니다.

* 공재=지빈=흑페
↓(3월26일)







거리가 멀어지기 전에 디코 외에도 트위터에서 마찬가지로 건강 문제나 힘들다는 글이 올라왔을 때 걱정된다는 답글을 남기기도 했고 마음을 찍어 표시했습니다.

제 쪽에서도 당연히 신경을 쓰고 있었고 제 쪽에서도 물꼬를 틀었고 정말로 관심이 없었다면 그런 행동 자체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흑페님에게 개인디코로 말씀드리기 전, 평소 디코에서 자주 뵈었던 몇 러너분들께 그간 흑페님이 말씀하신 행동을 제가 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부탁드렸고, 이에 본인들은 전혀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셨다고들 답변을 주셨고, 오히려 둘의 사이가 좋아 보였고. 이러한 흑페님의 반응에 의문점을 가지셨습니다.

흑페님이 서운한 내용에 대해 직접 제게 얘기하지 않은 부분은 이해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제 의도를 확인하기보다, 제가 의도적으로 무시했을 것이라고 단정 지은 채 관계가 멀어진 점은 짚고 넘어가고싶습니다.

사건 **3.** 이후 디스코드 및 트위터에서의 배제

이후 관계를 풀어보고자 개인 디스코드로 찾아가 대화를 시도했을 때, 생각해 보겠다며 시간을 달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두고 기다렸으나, 이후에도 여전히 답은 주지 않으신 채

1. 디스코드에서 인사를 동반한 모든 언행을 무시하며 반응하지 않는 행위

2. 제가 들어오고 몇분 뒤 디코를 나가버리는 행위

3. 혹은 **gg**님과 합세하여 제 말에 대답을 않고 말주제를 돌리시는 행위

4. 제가 대화중임에도 다른 분을 지목해 대화를 이어가는 등

본인이 관리진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코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저를 단순히 피하시는 걸 넘어 고립시키는 행동이 계속되었습니다**.**

스팀 게임을 할 때, 제가 대화를 시도할때, 다른 사람에게만 반응하거나, 게임협력 상황에서도 저를 제외하는 모습이 반복되었습니다. 단순히 어색해서 거리를 두는 수준을 넘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애프터 디코에서 모든 분들이 이 점을 눈치채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느 따돌림이 그렇듯이 당사자가 느끼는 것과 제 **3**자가 느끼는 태도의 변화 양상은 확연히 다른것이며,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행위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분명한 문제로 인식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부분은 주변에서도 눈에 띄었는지 익명의 러너님들 및 관리진 분 또한 걱정되어 개인 디코로 제게 따로 연락을 주실 정도였습니다.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같은 애프터 서버에서 여럿 계속 함께 있는 상황에서 개인적인 관계 문제를 떠나 불필요할 정도로 한 사람만 선택적으로 무시하거나 고의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은 서로에게 또한 다수의 분들께 더 불편한 분위기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지금은 예전처럼 가까워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같은 공간에 있는 만큼, 최소한 공개적인 자리에서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배제하는 행동 없이 기본적인 선에서 자연스럽게 공존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서로 편하게 지내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같은 서버 안에서 불필요하게 불편해지는 상황은 만들지 않는 것이 단체생활의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약

1. 게임 트러블 이후 공개 욕설·서버 이탈 후 사과 강요**,** 이후 운영에서 의도적으로 소외**.**

2. 소외 이후 커뮤 하차**, 1.5**기 회의에서 단 한 번도 연락받지 못해 뒤늦게 인지**.**

3. 사적인 감정과 독단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해**,** 정상적인 러닝을 하던 러너가 부당하게 제명당함**.**

4. 사비로 맡긴 커미션 작업물 탈퇴 후에도 무단 사용**,** 현재 정당한 권리 행사 의사 밝힘**.**

B는 해당 커뮤니티의 총괄 역할을 맡았던 인물이며, 이후 엔딩 이후 발생한 문제로 인해 현재는 해당 역할에서 하차한 상태입니다.

1. 러닝중 개인적인 트러블로 인한 운영 소외

1월 **19**일 흑페님과 커뮤 운영 도중, 마인크래프트에서 게임 캐릭터끼리의 다툼이 있었고, 흑페님께서 **“**죽겠다**”** 는 발언으로 싸움을 멈추었습니다. 이후 흑페님께서 회복 물약을 사용하였기에, 체력을 회복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추가로 **1**회 공격을 가했으나, 결과적으로 흑페님 캐릭터가 사망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모두가 볼 수 있는 지역채팅에 **“**니 알아서 해 씨발아**”, “** 나 운영안해 **“ ,”** 좇까라 **“** 등 러너들이 혼란스러울만한 채팅을 치고 서버를 이탈하셨습니다.

[CHAT] (지역채팅) 하지빈 : 야차떠 씨*아
[CHAT] (지역채팅) 하지빈 : 크리에이티브꺼라 씨*
[CHAT] (지역채팅) [redacted]: 리치 짧아서 팔 안 닿는거봐
[CHAT] (지역채팅) [redacted]: ㅋㅋ
[CHAT] (지역채팅) [redacted]: 존나 털리네
[CHAT] (지역채팅) 하지빈 : 개약아빠진새끼
[CHAT] (지역채팅) 하지빈 : 꼬추떼라 씨&아
[CHAT] (지역채팅) [redacted]: 아 되네
[CHAT] (지역채팅) [redacted]: 잘 맞는데
[CHAT] (지역채팅) [redacted]: 지빈아 이겨
[CHAT] (지역채팅) 하지빈 : 쫄튀
[CHAT] (지역채팅) 하지빈 : 꺼져라
[CHAT] (지역채팅) [redacted]: 상어형 이겨
[CHAT] (지역채팅) [redacted]: 이겨보라니까
[CHAT] (지역채팅) [redacted] 팬픽순서 바꿔야지
[CHAT] (지역채팅) 하지빈 : 야나죽어
[CHAT] (지역채팅) 하지빈 : 나파란열쇠
[CHAT] (지역채팅) 염상동 : 봐준다
[CHAT] (지역채팅) 염상동 : ㅋㅋ
[CHAT] (지역채팅) [redacted]: ㅋㅋ
[CHAT] (지역채팅) [redacted]: ㅋㅋ
[CHAT] (지역채팅) [redacted]: ㅋㅋ
[CHAT] (지역채팅) [redacted]: 따뜻해
[CHAT] (지역채팅) 염상동 : 다들봤지
[CHAT] (지역채팅) 하지빈 : 시발어캐쓰는거지
[CHAT] (지역채팅) 염상동 : 내가이긴다
[CHAT] (지역채팅) 하지빈 : 크리에이티브켜놓고
[CHAT] (지역채팅) 하지빈 : 지랄하네
[CHAT] (지역채팅) [redacted]: 상어형이 짱이긴해
[CHAT] 하지빈 was slain by gonghwa0
[CHAT] (지역채팅) [redacted]: ?
[CHAT] (지역채팅) [redacted]: 갑옷을 뭐 이리 입어뒀어
[CHAT] (지역채팅) [redacted]: 끔찍한 장면이..
[CHAT] (지역채팅) 하지빈 : 나 운영안해
[CHAT] (지역채팅) 하지빈 : 염상동 니알아서해 씨발아
[CHAT] (지역채팅) 염상동 : 열쇠는 내가 먹어줬어
[CHAT] (지역채팅) 염상동 : 열쇠는 내가 먹어줬어
[CHAT] (지역채팅) 하지빈 : 니알아서해씨*아
[CHAT] (지역채팅) 하지빈 : 좇까라
[CHAT] ri_0 left the game

이후 저와 다른 운영진이 있던 디스코드 음성채널에 들어오셔서 **“ b**야 나한테 할 말 없어**? “, “** 네가 사과 안할 것 같아서 내가 찾아왔어**. “, “ b**야**,** 인정을 해**. “** 라고 압박하며 사과를 강요하였고, 이에 사과드렸습니다.

이후, 의도적으로 저를 배제하는 듯한 태도가 계속되었습니다**.** 커뮤 엔딩 이후 흑페님 주도하에 1.5기 개장 준비를 하게 되었단 소식을 일부 관리진에게 들었으나, 해당 과정에서

이루어진 운영진 회의에 대해 단 한 차례도 관련 안내나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운영 카톡방에 개장 관련 내용이 공유된 이후에야 상황을 인지하게 되어, 낙원 커뮤의 **1.5**기가 열린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았습니다**.**

때문에 더 이상 정상적인 운영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저는, 커뮤를 망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조용히 나가는 쪽을 택했습니다.

1.5기 개장 발언
*****흑페님께서 타 관리진과 개장 관련한 구두 약속 이후 운영 카톡방에 올라온 내용
1.75기 개장 발언
*****부기**=**공재**=**흑페

2. 불공정한 운영 대처

러닝 당시, 흑페님 측에서는 익명의 러너가 본인에게 호감을 표현했으며 그 정도가 과하고 불편한 수준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해당 행동이 커뮤니티 운영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를 문제 삼는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해당 러너는 상황에 대해 사과하였으나, 흑페님은 해당 사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사과 이후에는 관심이 줄어들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지속적으로 말을 걸어온다는 이유로 불편함을 계속 표명하였고, 최종적으로 제명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러너는 제명 조치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E**님을 통해 확인한 사실은 흑페님의 주장과 상반되었습니다. 당시 커뮤니티는 스토리 기반으로 진행 중이었기에, **E**님은 조사와 힌트 획득을 위해 필요한 대화를 시도한 것이었으며, 사과 이후의 접촉 또한 이벤트 참여 및 러닝 진행을 위한 질문이었다는 해명이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상황이 발생한 이후, 흑페님과 자주 함께 다니던 일부 러너들 사이에서 본인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 느꼈다는 점도 전달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사과 및 해명 시도 자체에 대해서도 불편함을 표하며 소통이 단절된 채 제명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헸습니다.

운영진은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흑페님의 **'**불편함**'**이라는 사적인 감정을 우선시하여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는 운영진으로서 중립성을 잃은 명백히 부당한 처사로 생각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함께 운영에 참여했던 총괄로서 보다 적극적인 중재나 사실 확인을 진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3. 커미션 작업물 무단 사용

낙원 커뮤 마인크래프트 서버 내의 도트 리소스**,** 로고**,** 홍보지에 포함된 보이스 등은 모두 제가 직접 사비를 들여 진행한 커미션 작업물입니다. 약 **20**만원의 지출이 있었으며, 또한 서버 운영에 필요한 플러그인 역시 제가 개인적으로 구매하여 제공해 왔습니다.

제가 커뮤 이탈 이후, 흑페님 주도하에 진행된 **1.5**기 및 **1.75**기에서도 해당 작업물들이 무단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허락해준 적도 없을 뿐더러, 사용한 소식도 이후에 들었습니다. 듣고 한동안은 운영진과의 개인적인 친분과 러너분들에 대한 애정으로 사용을 묵인해 왔으나, 최근 A님의 소식을 들었고, 더이상 침묵하고 있을수만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가로, 저는 커뮤니티 운영 과정에서 건축 작업에 참여하고 스토리를 정리했으며, 필요한 리소스를 제작하기 위해 개인 비용까지 지출하는 등 지속적으로 기여해왔습니다. 또한 일부 프로젝트의 경우 스토리와 무관하게 흑페님 측에서 먼저 제안을 주셔서 함께 진행하게 된 것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명 이후 흑페님께서 생성하신 디스코드 내에서 커뮤 러너들을 대상으로 저에 관한 부정적인 발언이 이루어진 정황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이는 편을 나누는 방식으로 비춰질 수 있는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커뮤니티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식의 평가까지 이어지며, 제가 해온 기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괴리를 느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약

1. 흑페는 친밀감으로 접근 후 여론 형성 먼저 힘든 이야기를 꺼내 라포를 쌓고**,** 마음에 안 드는 인원을 뒤에서 조종해 내보내는 패턴이 반복됨

2. 해명 기회 없는 집단 압박 **5~6**명을 동시에 데려와 마이크를 끈 채 질문 공세**, "**편 들면 너도 보낼 준비 했다**."**는 경고까지

3. 새 커뮤에서 똑같이 반복**.** 기존 디코가 흩어지면 새로운 무리에서 동일한 패턴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함

저의 경우는 흑페님이 있던 초기 디스코드 단체 모임을 매번 리드했고, 그 분을 안 지는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사람들과 두루 친했기에 편가르기가 어려웠어서 그분이 저를 크게 건들진 않았습니다. 다만 일정한 피해자 양성 패턴, 수동적 대화 유도가 있었고 그걸 회피하기 위해 나중에는 디코도 못 들어갔으니...

저도 피해자인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씁니다.

흑페의 가스라이팅과 고립 주도엔 똑같은 패턴이 있습니다**.**

1) 발단: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자처한다.
자연스럽게 서로의 약점, 정신적인 약점이나 비밀 이야기를 하도록 유도하고 라포를 형성합니다.
>자기가 먼저 힘든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것이 은근히 깊은 친밀감 형성에 좋은 마인드 컨트롤 방식입니다.

2) 전개**:**
이후 단계적인 마인드 컨트롤과 지속적인 가스라이팅, 물타기 대화를 시작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사회생활도 어느 정도 해봤고 가스라이팅, 나르시시즘에 익숙했기에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 흑페는 이렇게 통하지 않는 사람은 버리고 맞춤형 피해자를 물색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2명을 완전한 자기 편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때쯤 디코에 거의 상주하며 사람들과 하루 종일 대화하고, 여기서 몇몇 혹은 전부를 본인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다독여줘야 했습니다.)

3) 위기: 여론 형성을 시작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인원을 짚어 쫓아내기 위해 연막을

칩니다. 일단 분위기를 잡고, 힘든 일이 있다는 등 운을 띄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도 함께 내보내 버립니다. (그 대상이 저였습니다.)

[*관련 사건: 디코 인원 A의 평소 언행이 디코 내 분위기를 흐린다고 판단한 흑페.
디코 장을 시켜서 내보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곱게 내보낸 것이 아니라, A가 디코 채널 1에 들어오면 바로 아래 채널 2로 이동하는등, 특정 인원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행동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보다 못한 제가 2~3번 채널 2로 내려가자 저도 쫓겨났습니다. (이유도 듣지 못했습니다.)
나중에야 채널에 들어와 이유를 말해주었으나, "그냥 A를 통보 없이 내보낼 것이다"라는 분위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정도 있고 A가 어렸기에, 제가 대표로 다른 인원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 오겠다고 했으나, 이야기하는 도중에 저도 내보내졌습니다. 이때도 중요한 행동은 다른 사람이 하고 흑페는 뒤에서 마인드 컨트롤을 했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디코 인원이었던 A가 쫓겨나고, 저는 이때부터 마음속에 피어난 작은 불신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4) 절정: 충격으로 디코에 며칠 못 들어왔다가, 오랜만에 들어와 아무 생각 없이 영화를 보고 있는데 (당시 인원: 3명), 갑자기 5~6명을 동시에 데리고 들어와 모두 마이크를 끈 채 한 명만 마이크를 켜게 한 뒤 저에게 A 관련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A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요즘 디코 안 들어오고 A랑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는 등.)

저는 그때 졸업 작품도 준비 중이었고, 안 그래도 멘탈이 좋지 않았기에 그냥 자폭할까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를 켠 친구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친구였고, 내막을 모르는 어린 친구도 그 자리에 있었기에 그냥 참고 넘겼습니다. 그 뒤에 마이크 켜고 대표로 이야기한 친구는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그 친구가 미안해할 일이 아닌데... 그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대화가 끝나고 흑페가 갑자기 마이크를 켜서

"아니, 나는 네가 A 편이었으면 너를 보낼 마음의 준비까지 했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너도 여론을 유도해서 강퇴시키려 했으니 행동 조심해라)는 뜻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디코를 안 들어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디코 인원들이 하나둘 안 들어오기 시작하자, 심심해진 흑페는 또 새로운 디코를 찾으러 갑니다.

5) 결말
새로운 디코에서도 다시 1) 발단에서 언급한 내용이 시작됩니다.

무리에 안착하여 그곳의 리더 자리 혹은 정신적 지주 자리를 꿰찹니다. 흑페의 접근법은 보통 힘든 일 들어주기, 혹은 자기가 먼저 힘든 일 말하기입니다. 디코에는 그림 그리는 사람이 대부분이니 보통 그림 고민 같은 라포 형성이 쉬운 이야기와 고민을 주제로 던지다가, 한두 명이 자기 쪽으로 90% 이상 넘어온 것 같다 싶으면 갑자기 평소 마음에 안 들었던 인원 1명을 짚어 무리를 선동하고, 해명할 시간도 없이 그 인원을 내보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어느 순간 흑페의 피해자가 되어 평소에 친하다고 생각했던 지인, 친구들에게

한순간에 등돌려질수 있다는 사실



이 글을 작성하게 된 이유 중하나는,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 반복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특정 개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이 글을 쓴 것이아닙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실에 근거하여, 유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분들께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공유하는 것임을 밝힙니다.

이러한 패턴의 관계에서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판단은 언제나 읽으시는 분들의 몫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요약

1. 흑페님이 착한 척 한다는 말**.** 고민 해결책을 구했을 뿐인데 **"**뒷담 시원하게 하지 착한 척**."**이라는 말을 들었고**,** 새벽 대화 후 트위터에 저격글이 올라왔음**.**

2. 사과를 받아낸 후 사실과 다르게 전달. 흑페님 주도로 사과까지 하게 됐으나**,** 실제 대화 내용이 **"**내 이야기만 해서 힘들게 했다**."**는 식으로 둔갑되어 있었음**.**

3. 당사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반복적으로 다르게 전달. 거리를 두겠다고 알리고 자리를 비운 사이**,** 제보를 통해 본인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왜곡되어 전달된 것을 제보받았음**.**

흑페님과 함께 있던 디코에서 경험했던 일입니다.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지인에 대한 이야길 제가 시작하며
‘좋은 사람인데 최근에 자꾸 미운 점들이 보인다.’ 를 주제로 깔았었습니다.

제가 당시 원했던 것은 개인적인 감정을 어떻게 잘 풀 수 있을까에 대한
긍정적인 해결책이었으나, 흑페님께서 ‘결국 뒷담이면 그냥 시원하게 하지 착한 척 하는 것 같다.’
라고 제게 말씀하셔서 당황했습니다.

그 밖에도 어느 커뮤를 운영하시며 개인적 감정으로 러닝기간 중 제명을 논하시던 중 반대의견에 대해 비슷한 말들을 하셨었던 것을 들었습니다.

비슷한 패턴들을 경험하며 같이 지내던 어느 날, 새벽 늦게 둘만 남게 되어 디코를 하던 때였습니다.
해외에 거주하신단 말을 듣고, 평소 관심있던 지역이기에 본인 얘길 먼저 시작으로 자연스레
흑페님의 일상이나 그 지역에 관한 문화를 듣고 싶어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위의 말을 요약하자면 애초에 대화의 목적이 친밀감을 더 형성하기 위함이었고
그 안에 담긴 고민거리나 진로 등의 주제는 부속적인 것들이었습니다.
한참을 얘기하다가 시간이 너무 늦은 것 같다고 판단했기에 해산하자고 하고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맞팔이 되어있는 트위터에 흑페님께서 게시글 업로드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새벽 디코에 관한 저격이었습니다.

'내가 피곤해죽겠는데 새벽까지 이야길 들어주고 자기한테 맞춰준 건지도 모르고 잘 맞는다고 착각한 주제에 고맙단 말은 안 하는 게 빡친다.'
(당시의 워딩과는 조금 다릅니다. 편의를 위해 정리했습니다.)

이 게시글을 볼 당시에는 본인의 이야기인지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었습니다. 의심하는 단계였기에, 기억에만 남겨두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디코를 하고 있던 도중 흑페님께서 '지금 너무 부정적이다.' 라는 말을 하시고
제 발언을 끊었습니다.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잠시 침묵한 후에 흑페님께 '혹시 지금 제가 최근에 많이 부정적이었나요?' 라고 여쭈었습니다.

위의 일은 제 문제가 있음을 인지했고, 디코 끝무렵 흑페님 주장에 따라 사과의 말씀과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흑페님과 다른 분들께도 어쩌면 끼쳤을 안 좋은 말들에 대한 사과와 말해줘서 감사하단 얘기.)

ㄴ 여기서 트위터 저격글이 제 얘기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앞으로 오래 가고 싶다는 말을 시작으로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시며 자신 또한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했음에도 어느새 제가 제 이야기만 해서 힘들었고 빡쳤단 식으로 얘기가 둔갑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미처 몰랐었습니다. 사건 이후 깊게 고민하였고, 디코에 계시던 다른 분께 장문을 보내며 본인의 상태가 지금 안 좋은 것 같으니 좋아하는 분들께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당분간은 거리를 두겠다, 오해하지 말아달라 미안하다, 알렸습니다. 후에 돌아왔을때 저에 대한 얘길 반복적으로 다르게 전달되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마무리 **]**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여서 공론화의 취지에 맞는지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저 뿐만이 아니라 비슷한 패턴으로 피해자분들이
많으신 것을 알게되어 사실여부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작성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낙원 커뮤니티 제명 건과 관련하여 입장을 밝힙니다.

a님 사건을 중점으로, 낙원 커뮤 관리진 측은 내부 회의 끝에 커뮤 내 무통보 제명 후 러너분들께 안내차 공지를 작성하였습니다.

제명 공지 첨부 이미지

당시 제명 공지에서는 신속한 조치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상세한 설명을 생략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사안과 관련된 내용이 외부로 확산되며 사실과 다른 이야기까지 함께 퍼지고 있는 상황을 확인하였고, 이에 정확한 경위를 전달하기 위해 본 글을 작성합니다.

개인 간의 트러블은 원칙적으로 관리진이 개입할 사안이 아닙니다. 그러나 해당 사안의 경우, 개인의 감정이 다수의 러너가 자리한 곳에서 표출되었고, 이로 인해 특정인을 배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 인지한 러너분들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러너분께서 인지할만큼의 지속적인 문제 행위, 해당 일의 시작일을 기점으로 관련된 특정 인원을 제외하여 생성된 사적 친목방 등은 충분히 배제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리진은 이러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를 단순한 개인 문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커뮤니티 내 분위기와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보아 제재가 필요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적 친목방 생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애프터 활성화 여부와는 별개로, 관리진과의 사전 협의 없이 비공개 채널이 생성된 점은 운영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더불어, 사적 친목방 생성을 지양하자는 방침을 스스로 언급하였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점 역시 고려되었습니다.

친목방 생성 규제 관련 대화 첨부 이미지
* 부기=흑폐

관련 규칙이 명확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고 비공개적으로 친목을 유도하는 행위는 운영 방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해당 규칙의 형성 과정에 관여하고 그 취지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던 당사자가 이를 스스로 위반한 점은 사안의 심각성을 높이는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관리진은 특정 개인에 대한 감정과 무관하게, 기존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명 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방식은 이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온 운영 원칙에 근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명 이후에도 일부 인원을 별도로 모아 사실 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공유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비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커뮤니티 질서를 저해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명 이후 생성된 채널 첨부 이미지

***gg =** 관련 사건 제명 인원
***.=**흑페

이에 따라 사안의 확산 및 왜곡을 방지하고, 명확한 사실관계를 전달하기 위해 본 입장문을 추가로 작성했습니다.

아울러,

저희 측에서는 상황을 정리하고 대화를 시도하려 했었으나, 대화 시도 전 상대측에서 먼저 디스코드 서버를 개설하여 2차 가해 및 조리돌림을 선동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더 이상 대화를 통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대화가 아닌 공론화를 결정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2**차 가해에 가담한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책임 있는 사과를 받을 의사가 있습니다**.**

사과 의사가 있으시다면**,**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